

강진군, 농기계 예산 14억원 투입...일손 해소 나선다

고령화 대응 현장 맞춤형 지원 곡물건조기·드론 등 공급 완료 구입비 최대 1000만원까지 확대 안전사고 예방 장치 무상 보급

전라남도 강진군이 농촌 인구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14억원 규모의 농기계 지원사업에 나섰다.

22일 강진군에 따르면 중대형 농기계 66대, 소형농기계 238대, 특수 농기계 2대, 농업용 지게차 7대, 곡물건조기 7대, 농업용 드론 24대, 논콩 전용 농기계 6대

등을 이달 내 농가에 공급 완료했다.

농기계 지원사업은 농작업 기계화율을 높이고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농기계 1대당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폭을 확대했다.

특히 최근 들어 벼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대체작물로 논콩 재배 확대에 대응해 지난해에 이어 2억8000만원을 들여 콤팩트 2대, 파종기 4대를 보급했다.

올해 공급 완료한 농업용 드론의 경우, 지원 기준을 '들녘별 벼 4ha 이상 또는 밭 1ha 이상 공동방제 체제 농가'로 변경해 대상 폭을 넓혔다.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은 곡물 건조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진기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이달 7일부터 개정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과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2톤 미만 농업용 지게차는 건설기계 등록과 운전 자격 없이도 지원이 가능해졌다. 군은 이를 반영해 농업(법)인에 대한 규제 완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기계 등화장치 30대를 무상 지원하고, 9800만원을 들여 폐농기계 처리 보상과 환경 오염 문제 해소를 위한 농기

계 미세먼지 저감 사업도 진행한다.

이밖에 강진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진 만큼 농기계 사고 예방과 안전한 영농 활동을 위해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안전 사고 예방 교육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농기계 공급 확대 사업으로 고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으로부터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현장 농업인의 요구를 반영한 농기계 지원으로 농업인의 일손 부족 해소와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2025 강진청자배 남·여 배구대회' 강진군, 24~25일 전국 성인 대상

전라남도 강진군체육회가 주최하고 강진군배구협회가 주관하는 '2025 강진청자배 남·여 배구대회'가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강진군 일원에서 개최된다.

22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전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 규모의 행사로 선수 1000여명과 대회관계자 500여명 등 총 1500여명이 참가할 예정으로 관내 숙박을 통해 2일간 3000여명이 2일간 강진군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기는 강진군 제1실내체육관, 제2실내체육관, 강진중앙초등학교 강당, 생명과학고강당 총 4개소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대회를 통해 지역 내 체육 인프라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지역민과 방문객 간 활발한 교류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군은 본 대회를 통해 약 2억8600만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강진군 브랜드 가치 제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이번 대회가 전국 배구 동호인들이 화합하고 실력을 겨루는 장이 되는 동시에 강진군의 체육·관광 자원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강진군이 스포츠를 매개로 경제적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영암군, 무화과 접목 실습 교육 삼호읍 망산리 무화과농장서

전라남도 영암군이 지난 20일 삼호읍 망산리의 한 무화과농장에서 무화과연구회원들과 함께 접목 실습 교육을 진행했다.

22일 영암군에 따르면 무화과 접목 분야 선도농업인인 이달복 씨가 진행한 이번 교육에서는 무화과 접목 기술, 재배 관리 방법 이론강의와 실습이 병행됐다.

이정 영암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무화과연구회 회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전파해서 전국 최고의 무화과 재배지의 명성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영암=한교진 기자



영암군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지난 20일 영암군 삼호읍 망산리 한 무화과 농장에서 무화과 재배 관리 방법을 설명 하고 있다

영암군 제공



해양오염 취약선박 관리 강화 목포해경, 장기 방치·계류 등

전라남도 목포해양경찰서가 연안 또는 항만에 방치되거나 장기 계류된 해양오염 취약선박에 대한 실태조사를 오는 6월 27일까지 6주간 실시하며 관리강화에 나섰다.

22일 목포해양경찰에 따르면 해양오염 취약선박은 장기간 운항하지 않고 항구에 방치되어 선체노후, 소유자 관리 소홀 등으로 해양오염 위험성이 높은 선박으로 현재까지 파악중인 관내 취약선박은 32척에 달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6개월 이상 운항하지 않는 선박 및 외관상 해양오염 우려가 높은 선박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선체 손상으로 인한 침수 가능성파악, 적재된 오염물질 잔존량과 종류, 선박소유자의 관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목포해경은 이번 조사를 통해 선박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선박 내 잔존 연료유 및 폐유 등 오염물질을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선박 제거 등 지속적 관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장기방치 선박 대부분은 관리부실과 노후화로 오염물질의 해양유출 가능성이 높다"며 "오염물질 유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중심의 적극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해남군, 청년 소모임 활성화 지원

30개팀 선정

전라남도 해남군은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돕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청년 소모임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청년 소모임 활성화 사업은 단순 친목이나 영리성 목적을 띤 모임 등을 제외한

다양한 청년 소모임 활동에 대해 100만원 내외의 활동비를 지원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관내 거주 중인 18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을 구성원으로 하는 3인 이상의 소모임이다.

모임 대표자는 반드시 해남에 거주해야 하며 모임원의 해남 거주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총 30개팀을 선정하게 된다.

오는 30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해남군청 미래공동체과 청년팀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해남군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문의는 해남군청 미래공동체과 (061-530-5062)로 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해남=전연수 기자

농협광주본부·북광주농협, 딸기 수확 체험

친환경 재배법 학습 등

농협광주본부가 북광주농협과 지난 20일 양산동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100명을 대상으로 딸기 수확 체험활동을 실시했다.

22일 농협광주본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아동들에게 친환경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촌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이들은 북광주농협 지산딸기작목회 소속 시설하우스에서 직접 딸기를 수확하며 농작물의 성장과정과 친환경 재배법에



지난 20일 농협광주본부가 북광주농협과 양산동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100명을 대상으로 딸기 수확 체험 활동을 펼쳤다.

농협광주본부 제공

대해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구상봉 북광주농협 조합장은 "이번 체험활동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지역 대표 특산물인 '오매! 지산딸기'를 알리고 농업과 농촌의 소중함을 일

깨우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호 본부장은 "아이들이 농촌과 함께 어울리며 즐겁게 배우는 모습에서 농업의 미래와 희망을 보았다"며 "농협은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하고, 농촌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진용 기자



2025 비금도 삼막 예술축제 신안군, 유럽 17개국 참여

24일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도에서 '2025 신안 비금도 삼막 예술축제'가 열린다.

22일 신안군에 따르면 삼막 예술 축제는 1851년에 프랑스 포경선 나르발호가 비금도 인근 해역에서 난파되고 섬 주민들의 따뜻한 도움으로 선원들이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축제로 올해 두 번째를 맞이한다.

프랑스에서 유럽으로 범위를 확장해 17개국에서 10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축제는 프랑스와 한국의 우호적 만남을 샴페인과 막걸리의 상징적 만남으로 재해석해 문화예술교류와 국제적 연대를 주제로 펼쳐진다. 참가자들은 1851년 나르발호가 난파된 해역과 선원들이 머물렀던 공간 등 역사적 현장을 탐방한다

한국의 전통예술, 비금도의 민속예술, 샴페인과 막걸리 시음, 양국의 식문화와 문화체험 등이 진행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과 문화예술교류로 문화 다양성을 인식하고 상호간 지속가능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를 확산해 국제적 연대강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